

2010년 07월 ~ 09월 제34호 소 식 지

★ 성프란치스코의집

장애인 생활시설



“성프란치스코의 집 한가위 풍경”



익어가는 가을

이해인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가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도 익어가네

익어가는 날들은
행복하여라

말이 필요없는
고요한 기도

가을엔
너도 나도
익어서
사랑이 되네

후 · 원 · 회 · 미 · 사 · 안 · 내

후원자 · 자원봉사자 여러분을 위한 후원회 미사가
매월 둘째 주(일요일 기준) 목요일에 봉헌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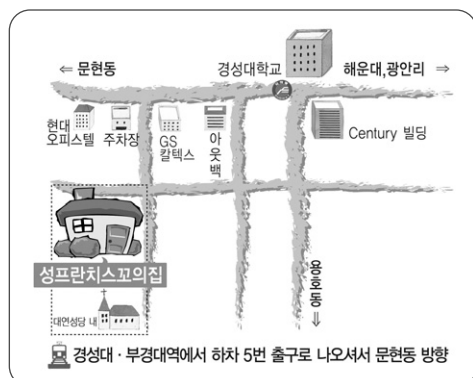
- ♥ 날짜 : 10월 14일 / 11월 18일 / 12월 16일
- ♥ 시간 : 19시 30분
- ♥ 장소 : 대연성당

CONTENTS

- 2... 목차
- 3... 여는 글 _ 용서하며 삽시다!
- 4... 우리들의 이야기 I _ 여름캠프
- 7... 라파엘의 그림세상
- 8... 우리들의 이야기 II _ 장애인해외문화탐방
- 10... 당신이 머무는 자리 I
- 13... 우리들의 발자국
- 14... 당신이 머무는 자리 II
- 16... 후원안내

발행일 2010년 10월 8일(금)(제34호)
발행처 성프란치스코의집
발행인 임태호
편집인 박민정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390번지
전 화 622-1652, 626-5766
팩 스 622-1625
홈페이지 www.franciscohome.or.kr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franlove.do>
e-mail fran1652@hanmail.net
인 쇄 (주)아임커뮤니케이션

찾아오시는 길



용서하며 삽시다

안현철 안토니오 신부

(곤벤두알 성프란치스코 수도회 대연수도원장)

“황금을 쌓아 두는 것보다는 자선을 행하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 버립니다. 자선을 행하는 사람은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사람입니다.”(토빗기 12,8-10)

후원회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십니까? 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어느덧 가을이 무르익어 갑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근심걱정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실로 여러분은 토빗기서를 통해 자선을 권하는 라파엘 천사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착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후원회 월례 미사에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매달 한 번씩 있는 후원회 미사에 참석하시면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시는 아이들 안에서 주님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후원회 미사에 참석하시면 만족할 만한 영성 강의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 미사에 참석하시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후원회 미사에서 뵈기를 기대하면서 지난 후원회 미사 때 했던 강론으로 오늘의 만남을 마치겠습니다.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늘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어울리는 행동은 얼마나 실천하며 사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용서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하느님의 모습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 분을 닮으려면 자꾸만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마태18,21-19,1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형제의 잘못을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일곱 번이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이에 대한 답으로 끝없는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용서에는 숫자가 없음을 강조하신 겁니다. 현대인들은 숫자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숫자에 매여 살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어쩌면 정작 우리가 베풀어야 할 용서는 단 한 번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일생 다했어야 할 용서의 덕은 단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일지 모릅니다. 그러한 용서일수록 더욱 어렵고 순간에 생긴 미움이 아니라 쌓이고 쌓인 마음이어서 한순간에 용서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욕심일 뿐이지요. 그러니 미움이 생긴 만큼의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끝없는 용서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더위탈출!! 떠나자 여름캠프!

휴가들은 잘 다녀오셨는지요? 성프란치스코의집 가족들도 지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로 진해해수욕장에 여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더위탈출! 떠나자 여름캠프'란 이름답게 무더위를 날려버렸습니다. 부산에는 태풍 때문에 비바람이 심했지만 저희 캠프지는 많은 분들의 걱정과 기도 덕분에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날씨가 좋아 종일 물놀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

'2010년 더위탈출!! 떠나자 여름캠프'의 시작을 알리는 개영식 선언 후 본격적으로 물놀이를 하기 전, 몸 풀기 게임으로 팀을 나누어 양동이에 바닷물을 퍼서 흘리지 않고 준비된 수조에 많이 채워 넣는 쪽이 이기는 '으랏차차 양동이 릴레이'를 했습니다. 한 낮의 뜨거운 태양아래에서 열심히 경기를 한 후 시원한 해수욕을 즐겼습니다. 물을 싫어하는 가족들은 모래찜질과 산책을 하는 등 각자 선호하는 편안한 휴가가 되도록 했습니다. 저녁에는 라이브카페에 모여 끼와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도전35곡'을 조별로 나누어 대결했습니다. 다들 조별응원도 열심히 하고 노래도 신나게 너무 잘 불려서 우승팀을 가려내기가 힘들었습니다. ^^



둘째날

모처럼 일상에서 탈출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 비가 내리지 않아 모래사장에서 간단한 게임을 한 후 해수욕을 했습니다. 신발을 던져서 홀라후프 안에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날아라 신발'은 휠체어를 타는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진해해수욕장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야외에서 단체 게임을 할 수가 없어서 네 방이조를 이루어 여름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려 이어 맞춘 후 이야기를 꾸미는 '그림 맞춰 이야기 꾸미기'를 했습니다. 다들 상품을 향한 승부욕이 대단해 짧은 시간동안 여러 재료들을 총동원해 멋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셋째날

아침에 날씨가 좋지 않아 숙소 내에서 '년센스 퀴즈'와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를 끝으로 여름캠프의 모든 프로그램을 끝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글라라홀에 모여 둘째 날 저녁에 실시했던 '그림 맞춰 이야기 꾸미기'의 조별 발표 및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즐거웠던 여름캠프를 마쳤습니다.



3일 동안 수고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100명에 가까운 대가족의 식사를 준비해주신 기장성당, 길천성당, 대연성당, 성가정성당, 후원협의회, 그리고 여름캠프를 지원해주신 정서회 후원자님 외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인사 올립니다.





여름캠프를 다녀와서

자원봉사자 장창식

저는 6월 중순까지, 성프란치스코의집과 자매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하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제55정보통신지원대대의 병사였습니다. 전역 후 여행을 하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름캠프 운전과 보육봉사 권유 전화를 받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박3일간 짝이 될 호근이, 같은 방을 쓸 친구들과 인사한 후 진해 해수욕장으로 출발하였는데 군에서 25인승 중형버스로 병사들을 태우고 봉사활동 다니다가 사회에 나와 성프란치스코의집 거주 장애인들을 태우고 운전봉사를 하니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해수욕장에 도착해서 물놀이 준비를 한 뒤 프로그램을 하고 각자의 짝과 함께 물놀이를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세고 바닷물이 많이 차가워 몸이 약한 호근이는 물놀이를 오래 하지 못하고 모래찜질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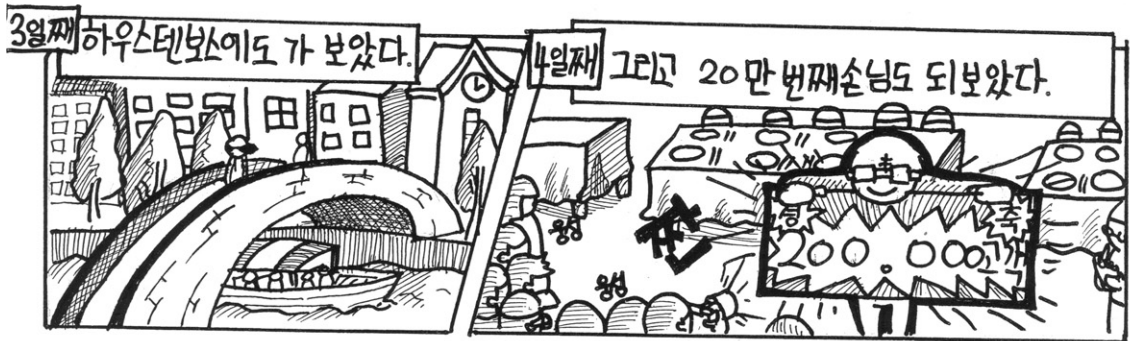
첫 날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잠자기 전에 휴식시간이 있어서 같은방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나갔는데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산책하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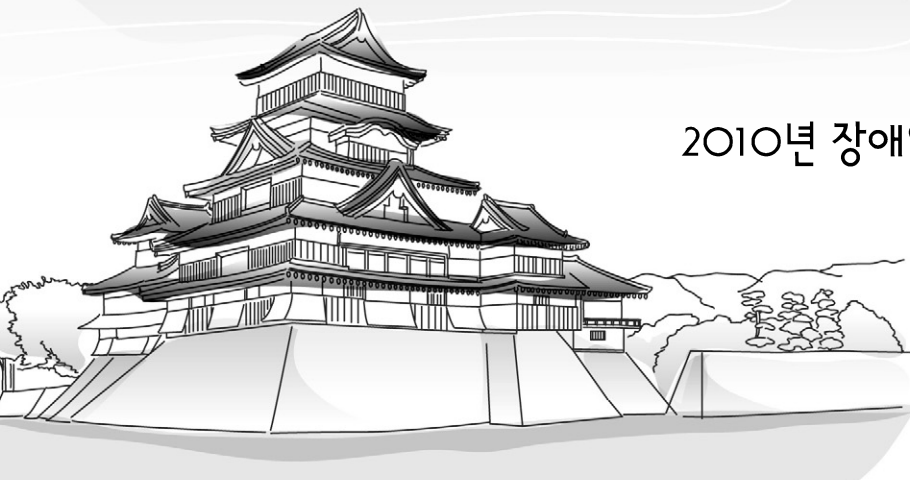
둘째 날 저녁부터 태풍 덴무의 영향으로 비가 내려 조별로 방에서 여름을 주제로 '그림 맞추어 이야기 꾸미기'를 했습니다.

셋째 날 날씨가 좋아진 틈을 타서 부산으로 돌아와 글라라홀에 모여 둘째 날 저녁에 했던 이야기 꾸미기의 그림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잘한 조를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고 2박3일간의 여름캠프는 끝이 났습니다.

여름캠프 기간 중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은 '도전35곡'이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의 짝이 호근이와 함께 했던 산책입니다. 몸이 약해 물놀이를 많이 못한 대신 바닷바람을 쐬며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산책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캠프기간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서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신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2010년 장애인 해외문화탐방

부산소재 장애인복지시설 거주 장애인과 담당교사가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일본 규슈지방으로 문화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시청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탐방은 일본 장애인시설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여러가지 문화체험으로 자 기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 장애인해외문화탐방을 다녀와서

미리내방 서동민

부산의 장애인복지시설에 살고 있는 형, 누나, 동생들과 함께 일본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을 가기 전부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 누나들을 통해 해외 문화탐방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탐방이 취소되어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가는 전날 밤에는 너무 기대되는 나머지 잠을 설치면서 여행에 대한 상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김해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일본으로 가는 내내 모든 것이 신기하였습니다. TV나 인터넷 등으로 보지만 하던 비행기를 처음 타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처음 경험을 해보는 것이었기에 신기하기도 하고 무척 즐거웠습니다. 일본탐방에서 만나게 된 동생을 잘 챙겨 주는 정문이형, 과묵한 대우형, 귀엽듯이 동생 노사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과 형, 누나를 알게 되어 여행을 하는 것 못지않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장애인 시설에서 운영 하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 갈 때부터 환한 미소로 인사하며 환영해 주어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직원과 주문을 받는 직원들, 모든 직원이 다 장애인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으며 또한 요리가 아주 맛있어서 더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레스토랑의 20만 번째 손님이 되어 꽃다발과 선물을 받았고 후쿠오카신문에도 실리게 된다고 하니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그 다음날 발간되어 신문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하우

스텐보스에서 제가 좋아하는 만화 '원피스'가 이벤트를 하여 500엔이라는 거액의 입장료를 내고 만화에 관련된 인형, 사진, 동영상을 볼 수 있었고 만화 캐릭터를 크게 만들어 놓은 작품들과 사진을 찍으며 아주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후쿠오카의 유명한 맛 집에 가서 라멘을 먹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라멘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라멘은 어떨까 하는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멘을 한입 먹는 순간 일본 라멘에 대한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평소 즐겨 먹었던 라멘과 많이 달랐습니다. 일본 라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라마다 음식이 다양하다는 것과 사람들의 입맛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우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행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서 부산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매우 가까운 거리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을 만나보면 서로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본의 문화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한 것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앞으로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문화탐방에 참여 해보지 못한 다른 가족들도 참가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음식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기억에 남을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 장애인해외문화탐방을 다녀와서

생활재활팀장 김대성

내 생애 첫 해외여행! 어떤 일이든 처음이 가장 설레며 두근거림이 강할 것이다. 마치 '9회 말 투아웃 타석에 들어선 타자의 마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며 마음은 벌써 일본을 누비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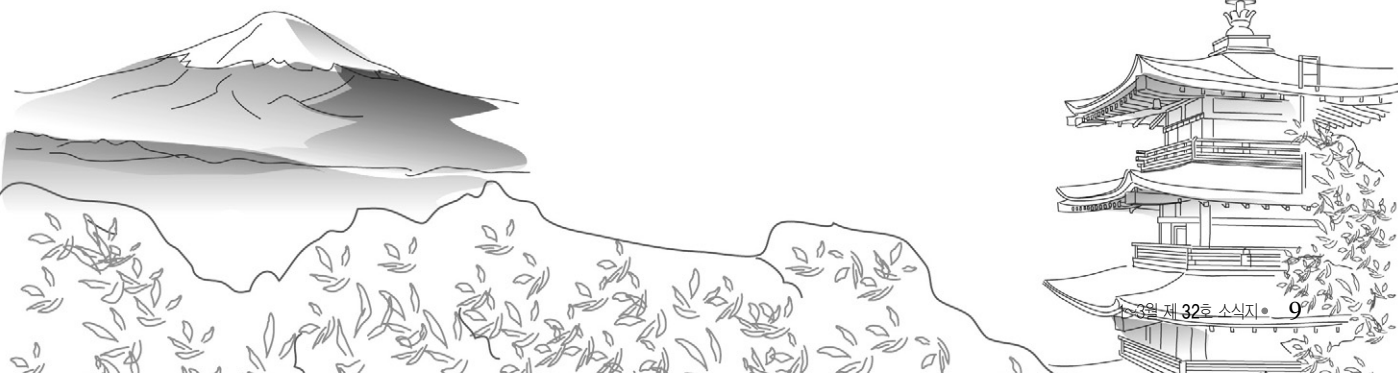
동민이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하여 김해공항에 도착하니 각 시설에서 참가하게 된 거주 장애인 친구들이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즐거운 여행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본에 도착한 첫 느낌은 화창한 날씨임에도 습도가 매우 높아 쾌적하지는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었다. 문화탐방의 일정 첫 날은 디자이너 텐마궁, 아시아 최고의 사파리를 관람하였고 둘째 날 유행재배지, 유후인, 아소산, 카마도지옥, 원숭이 쇼 관람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하였다. 셋째 날은 하우스 텐보스, 마지막 날은 후쿠오카 타워, 인공해수욕장(시사이드 모모치)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에서 직접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방문하였다. 이곳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

동민이와 3박 4일을 지내면서 새삼 느낀 것이 많았다. 일상생활에서는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던 교사였지만 일본에서는 서로 모르는 것을 알아갔다.

일본의 전통 옷인 유카타를 입는 방법이나 면 요리를 먹을 때는 소리를 내서 먹어야 한다든지 음식을 먹기 전 감사의 인사를 하는 등의 일본에 대한 상식과 일본어를 동민이에게 배우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내 마음이 항상 열려져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였는지 나 스스로가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았는지, 아이들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지에 대해 스스로 채찍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일본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30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새롭고 낯선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나를 설레고 들뜨게 만들어 주며 새로운 사람들과 공통된 것들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가족사랑+자원봉사'



유난히 무덥던 지난여름, 평소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고 싶었던 분들이 오셔서 따뜻한 마음 외에 소중한 '땀'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오셔서 저희와 인사를 하고, 저희가 사는 모습을 보시는 자원봉사자 분들과 달리 많은 후원자 분들은 몇 년 이 지나도 얼굴을 마주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연말에 은인들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성프란치스코의집 예술제'에 초대를 해도 마음만 함께 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는 후원자 여러분이 저희는 참 궁금했습니다. 저희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가정들이 각자 바쁜 일정으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프란치스코의집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기를 바라며 '가족사랑+플러시자원봉사'를 마련했습니다.

사춘기 자녀의 고민과 관심사는 무엇인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등 그 동안 부족했던 대화도 하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 청소년 자녀가 있는 후원가정이 참가하여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 일 정 : 1차 - 7월 21일 ~ 7월 23일(물리치료실 교구정리)
2차 - 7월 31일 ~ 8월 1일(시설환경정비)
- 참가대상 : 중학생이상 고교생이하 자녀 1인 이상인 후원자 선착순 10가정

● 가족사랑+자원봉사를 마치고...

참가일자 : 7월 21일~23일(물리치료실 교구정리)

이상룡 후원자님

배우자 김현자 _ 시간이 되면 조금 다른 생활에 동참해야지 생각했는데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 기분이 좋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라 살아있는 교육인 것 같다. 선행은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다.

자녀 이은영 _ 이번 성프란치스코의집에서의 봉사활동은 봉사시간을 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한 보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이대희 후원자님

배우자 이은화 _ 짧지만 아이와 함께 호흡을 맞추어 본 시간이었다. 곁에서 본 아빠의 말은 '생각보다 열심히 하더라'였다. 참 게으른 녀석이라고, 막내라 너무 봐주었다고 구박했는데 아이는 어느 새 할 몫이 생기면 묵묵히 제 일을 해낼 줄 아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온 식구가 땀을 흘릴 수 있게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했고 또, 앞으로도 내 아이의 성장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면 기꺼이 올 것이다.

자녀 이재현 _ 별로 힘들지 않고 시원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하여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참가하고 싶다.

서재식 후원자님

배우자 임승희 _ 물리치료실에 있는 많은 볼품들을 보고는 어떻게 닦을지 걱정했는데 여러 가정이 힘을 모아 깨끗이 닦으며 뾰드득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다. 아주 작은 몸짓이지만 깨끗해진 공을 볼 때 무언가 이루었다는 생각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다. 우리 아이들도 공을 깨끗이 닦듯이 마음을 깨끗이 닦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깨끗해진 볼품에서 이곳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자녀 서기석 _ 이 곳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좋았다. 물리치료실에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회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재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장애인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편견을 버리게 되었다.

자녀 서윤석 _ 조금 힘들고 땀나는 활동이었지만 나름 재미있기도 하고 보람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느끼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다.

김점규 후원자님

아들과 활동하면서 진정한 봉사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자그마한 활동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정기적으로 아이와 함께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하는 마음을 키워갔으면 하는 게 아버로서 바람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봉사활동 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한다. 아들과 함께하면서 이 아름다운 마음을 키워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좋은 경험이었다.

자녀 김현석 _ 종일 볼품만 닦아서 지루하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아빠와 있어서 좋았다. 처음에는 공이 너무 많아 절망했지만 다 닦고 나서는 뿌듯했다. 봉사활동 자체보다 더 즐거웠던 것은 아빠와 함께했다는 것이다. 다시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홍혜순 후원자님

이 곳 아이들을 생각한 내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 앞으로도 시간 채우기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했으면 한다.

배우자 오동만 _ 자원봉사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셔서 잘 끝낼 수 있었다. 장애인이 몸과 마음이 조금 불편한 것 빼고는 우리와 같다는 것 등 많은 것을 느꼈다.

자녀 오채연 _ 부모님과 대화하며 물리치료실의 공을 씻고, 닦고, 안으로 던지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생각 외로 너무 재미있었다. 오빠도 함께 와서 가족끼리 대화하고 봉사활동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가일자 : 7월 31일 ~ 8월 1일(시설환경정비 등 노력봉사)

유양아 후원자님

학생 때 이후 처음 자원봉사를 해봤는데 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보람 있고, 기분이 좋다.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너무 좋았고 특히, 가족이 함께 해서 더욱 뜻 깊었다.

배우자 강수향 _ '봉사'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경험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아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참여하게 되어 참 소중한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닌 일에 맘을 흘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자녀 강경현 _ '청소가 끝난 깨끗한 강당을 보니 뿌듯했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다. 다른 이웃들과도 정을 키울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시간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박승철 후원자님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뿌듯했다. 더위를 피해 휴가를 떠나는 계절에 가족과 함께 봉사하는 여러 가족들의 모습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을 느끼며 내 마음자세도 새롭게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꾸준히 이어져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영원하길 바란다.

김은숙 후원자님 _ 폭염주의보 날씨라 땀이 많이 났지만 가족이 함께 해 온 시간이라 보람 있고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좋은 분들을 뵈게 되어 더 좋았다.

박승철, 김은숙 후원자님의 자녀 박선영 _ 소화기의 색깔 찾기를 하며 즐겁게 청소했다. 앞으로도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놓치지 않을 것이다. 가족과 함께해서 더 즐거웠다.

이윤호 후원자님

무더운 여름 날씨였지만 마음속은 시원한 느낌이다. 남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 그것 때문인가 보다. 딸과 함께 땀을 흘리며 봉사하면서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풍선을 부는 것처럼 조금씩 커져가는 것 같았다. 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정의 분위기를 바꾸어보아야 하겠다.

자녀 이가금 _ 막막하던 청소가 끝나가는 걸 보면서 무척 뿌듯했다. 땀방울이 맺히고 더웠지만 밖을 나와 서늘한 바람이 불 때면 날 아갈 듯 시원했다. 힘을 합쳐 청소해보니 강당이 몰라보게 깨끗해져 있었다. 앞으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김주홍 후원자님

자원봉사는 덥고 힘들었지만 아들에게 본보기가 되는가 싶어 더 열심히 했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아들이 보고 나누는 세상을 느꼈으면 한다.

자녀 김성환 _ 이틀 동안 아빠와 함께 자원봉사를 해서 좀 더 열심히 한 것 같고, 놀지 않고 청소에만 신경 쓴 것 같다.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하계사회복지현장실습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신희연(부산가톨릭대학교), 양정원, 이지수(이상 동명대학교), 임재욱(경성대학교) 선생님이 거주 장애인의 이해 및 각 부서별 업무 등 장애인생활시설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실습을 하셨습니다. 4주 동안 배우신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멋지고 자랑스러운 사회복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 21일, 우리 집 글라라홀에 전국 각지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과 음악소리에 무슨 일인지 궁금했는데 바로 비올리스트 노현석님께서 '노현석 비올리스트와 함께하는 스위트드림' 카페회원 분들과 준비하신 자선음악회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자선음악회의 수익금을 우리 가족들을 위해 써달라고 하시며 전달해주셨습니다. 뜻 깊고 소중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성프란치스코의집에서는 거주 장애인의 전인적 발달과 사회통합실현을 위한 생활·의료·교육·사회심리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8일, 상반기 동안 실시한 사업들에 대해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부서별 연계를 통해 서비스 강화를 하기 위한 상반기 사업 평가회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번 추석에는 구름이 많거나 비가 내려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 소원 한 가지씩은 비셨죠?^^ 명절이면 집집마다 친지들이 모여 북적거리듯 성프란치스코의집도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하며 명절 기분을 한껏 냈습니다. 표지 사진처럼 각종 전이며 동그랑땡, 궁중 떡볶이 등 맛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다른 가족에게 먹여주며 누구의 음식이 더 맛있는지 자신의 음식솜씨를 뽐냈습니다. 즐거운 날에 음악이 빠질 수 없죠? 글라라홀에 모여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우고 영화를 보며 연휴를 마무리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1년 내내 한가위처럼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3/4분기에 가족 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만형이었던 권창훈씨가 자진퇴소(7월 5일)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립을 하기 전까지 자립지원센터 내 그룹 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창훈씨가 자립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몫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힘을 실어주세요~! 또, 창훈씨의 떠난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8월 23일, 눈웃음이 매력적인 7살 이창경이 우리 집 막내가 되어 바다방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 창경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곳... 성프란치스코의집으로 당신을 보내세요.

자원봉사/후원

(2010년 7월 1일 ~ 9월 30일)

| 가사지원-목욕 |

김민성 김성구 김우진 김지은 김희영 남선현 박영재 박재홍 박현준
서부건 서수정 성세훈 이가람 임민주 조은지 최은진
귀족의뜨락 라온공동체 대한적십자사보건의사회 부산30대의쉼터

| 가사지원-세탁 |

김영미 김성선 김영신 김정숙 김지혜 노민자 서영숙 성폭지 이강연
이복금 채정숙 허경희
겸손하신모후(석포성당)/교회의어머니,상지의옥좌(우동성당)/능하신정
녀,영광의성모(남천성당)/루르드의성모,모든성인의모후(광안성당)/성
실하신어머니(연산성당)/위로자의모후(좌동성당)/부산여성회관수선팀

| 가사지원-이·미용 | 박영자 뉴부천미용실

| 가사지원-주방 |

강경훈 고봉희 김명룡 김보자 김소중 김영미 김영혜 김지혜 김혜경
노경희 문한선 박삼식 박양주 박영자 양준석 양호원 유동화 윤영주
윤은미 이경자 이민영 이수선 이은화 장승한 장영애 정정자 조광유
정유진 최용석 최진영 한성욱 한 승 허봉열 홍상봉
능하신어머니(남천성당)/성가정의어머니(우동성당)/지혜로우신동정녀
(남천성당)

| 기술지원 | 김성필

| 노력봉사 |

김말분 백정희 정순자 지안순 최복례
경성대공과대집행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55통신지원대대/동정녀들의
어머니(남천성당)/망미독서회/바로미/솔잎/여럿이함께/즐거움의원천
(우동성당)/청소년팀/청솔회/해군작전사령부헌병전대

| 업무보조 | PAM

| 여가활동 및 프로그램 |

김수완 김영진 박재운 박수진 이도영 장미정 최용석
만심사랑/부산맛집술집/사랑나눔터/여럿이함께/정명릉도예공방/하얀
비둘기사랑모임

| 의료지원 | 김주영 노민자 천금자 뷰티스피부과

| 학습지도 |

고권진 권민주 김기쁨 김연정 김조원 박현준 박현희 백성희 서지현
손은선 신미정 안지수 여정윤 옥수정 유정훈 이신애 이아름 이정민
장정안 한소원

| 신규후원 |

곽승환 권경애 금영주 김동규 김동은 김희주 문용준 문희숙 박만열 외
신애숙 이민애 이은영 임동현 정영훈

| 개인후원 |

강수무 강승원 강영규 강영숙 고남우 고영실 고평년 공병우 공태임
곽두성 곽영호(요셉) 곽일수 구복연 권오봉 김건욱 김경란 김경은 김경호
김귀혜 김근용 김근제 김근태 김기순 김대희 김도훈 김동준 김명재
김명환 김미리암 김미향 김민경 김민수 김민정 김민혜 김보순 김봉균
김상태 김선미 김성근 김수완 김숙희 김순기 김시교 김연수 김영경
김영철 김옥석 김윤성 김윤희 김은숙 김은영 김은희 김인경 김점규
김정남 김정님 김정범 김정엽 김정옥 김정주 김정한 김정희 김종완
김주식 김주홍 김준희 김지영 김진희 김창훈 김태훈 김해인 김현정
김현준 김현해 김형우 김효식 김희숙(요안나) 남기한 남숙희 남용근
노명자 노병덕 노옥희 도재훈 류애라 류양아 류윤희 류인희 문병호
문영란 문영현 문종완 민남식 박경숙 박귀자 박민정 박분란 박상해
박승부 박승철 박영하 박영환 박용목 박용태 박윤정 박재식 박주연
박지영 박태원 박형재 박혜경(마리아) 박혜경(오티리아) 박혜숙 배영선
배윤희 배은옥 배일태 백광점 백운수 변시문 변재호 서경열 서승욱
서승환 석숙희 성락준 성병호 손윤경 손종식 송금희 송수복 신 동
신민철 신순숙 신승인 신운봉 신준설 신현대 심영숙 안연순 안연애
안영태 안장근 양봉금 양신석 양향열 엄경희 엄갑훈 엄정애 오희수
우창렬 유경국 유경근 유병규 유성재 윤도석 윤영철 이건상 이경자
이금숙 이대희 이동세 이득희 이미란 이미자 이병제 이삼주 이상룡
이상만 이상현 이세원 이순주 이술재 이신호 이연희 이영희 이옥분
이은일 이재영 이재용 이재욱 이재훈(마티아) 이재훈(청솔회) 이정민
이정희 이진아 이찬구 이해용 이형래 이화계 임순애 임승재 임용하
임용혁 임인학 임재근 임철재 임춘희 장덕기 장명숙 장승한 장연주
장지영 장현빈 장현지 전근향 전동진 전윤남 전태봉 정남희 정 란
정민선 정서희 정성민 정수태 정숙희 정승호 정영국 정용식 정윤주
정인혜 정종학 정진연 정찬중 정춘자 정태성 정태웅 정희정 조경숙
조영현 조옥련 조용철 조현영 주선포 주성균 지지안 진혜숙 차성진
천창호 최경남 최경실 최금석 최동훈 최만구 최민희 최복례 최선에
최성일 최숙자 최순자 최승근 최한나 최옥희 최용목 최윤선 최종득
최지선 최진욱 최창희 최혜순 최혜진 주미숙 하경태 하담원 하영진
하혜숙 한동미 한만섭 한명관 한미애 한수남 한영희 한일선 허 현
홍해숙 홍혜순 황경숙 황영복 황은숙 익 명

고려병원정형외과(박원욱)/김상엽정신과의원/동아대병원소아비뇨기과
(조원열)/바른노안과/박영호치과/박창수한의원/성모병원가정의학과
(정현주)/최원만의원

| 기업후원 |

국민연금관리공단남부산지사/도로교통공단부산지부/동서합동(관)/동
성무역(주)/유카로오토모빌/파라다이스글로벌(주)

| 결연후원 |

김민정 김선자 김영순 김영희 김정애 김현정 박병준 박상현 서원용
양화국 이정민 하혜숙

| 단체후원 |

가톨릭설비회/고리원자력본부/남부경찰서여경회/남부소방서/남부소방
서의용소방대/대연성당성물방/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여가증진프로
그램지원비)/성가정어머니(기장성당)/성모여자고등학교/슬기로우신모
후(남천성당)/오륙도낙지볶음/이마트단체지원/조선칼국수경성대점/평
화장터/해피빈/후원협의회/후원회미사봉헌금/웨이리마트경성대3호점

| 물품후원 |

강금순 관은자 김남숙 김종식 김현석 백광현 이영섭 이영숙 이창경숙모
이창경위탁모 장영표 정효순 익명
동해상회/롯데마트/메츠베이커리/박창수한의원/부경대학교인문사회과
학대학/부산남구의회/부산시청건축주택과/부산여성회관/씨티은행남천
지점연계익명/아이올라/오프베이커리/청솔회/하안비둘기사랑모임

| 해피빈 후원 |

해피로그에서 후원자 명단과 사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도록,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전화 부탁드립니다. 또한, 편집과정에서 이름이 빠지신
분이 계시면 양해를 구하며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박민정 ☎ 622-1652

| 3/4분기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

수입		사용	
기부금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67,082,977	의료비	2,724,670
지정후원금	17,131,059	사무비	12,408,082
비지정후원금	27,535,511	사업비	10,286,103
결연후원금	390,000	인건비	11,258,500
		시설비	24,339,501
계	112,139,547		61,016,856

| 2010년 추가경정 예산서 총괄표(4차) | (단위 : 천원)

구분		2010년 예산액	구성비	추경 예산액	구성비	증감
	합계	1,375,000	100.00%	1,375,000	100.00%	0
세 입	사업수입	8,500	0.62%	8,500	0.62%	0
	보조금수입	1,082,730	78.74%	1,082,230	78.71%	-500
	후원금수입	220,000	16.00%	220,000	16.00%	0
	차입금	453	0.03%	453	0.03%	0
	전입금	0	0.00%	0	0.00%	0
	이월금	49,184	3.58%	49,184	3.58%	0
	잠수입	14,133	1.03%	14,633	1.06%	500
	합계	1,375,000	100.00%	1,375,000	100.00%	0
세 출	사무비	1,031,053	74.99%	1,048,353	76.24%	17,300
	재산조성비	159,160	11.58%	133,660	9.72%	-25,500
	사업비	170,538	12.40%	178,738	13.00%	8,200
	잠지출	499	0.04%	499	0.04%	0
	예비비	13,750	1.00%	13,750	1.00%	0

사랑을 나누면 행복은 배가 됩니다.

| 후원안내 |

- 일 반 후 원 : 거주 장애인의 생활과 서비스, 시설운영에 쓰이는 비용을 자유롭게 후원
- 결 연 후 원 : 특정 거주 장애인과 결연하여 후원
- 물 품 후 원 : 과일, 간식, 디펜드 기저귀(소중형, 대형, 특대형), 하비스 기저귀(대형, 특대형), 화장지, 삼푸, 린스, 바디워시 등
- 지 정 후 원 : 캠프, 프로그램, 관리운영비 등 지원

♥ 사랑을 나눠 주시려면...

제일은행: 507-20-397452 / 국민은행: 556601-01-233237 / 부산은행: 036-01-033700-8

우리은행: 1005-900-942145 / 농협중앙회: 936-01-105492 / 은행지로: 7634437

예금주: 재)꼰벤두알 성프란치스코 수도회 성프란치스코의집

- 모금함, 해피빈(<http://happylog.naver.com/franlove.do>), 지역단체 마일리지제도 (이마트 문현점, 연산점, 해운대점)를 통한 후원참여도 있습니다.

※ 법인세법24조, 소득세법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기부자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담당자 : 박민정 ☎622-1652, 626-5766)

후원은 하고 싶는데 재활원이나 은행을 방문하시기 번거로우시죠?

정해진 금액과 기간이 없어서 부담 없는 모금함 후원도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모금함 배부처

김창숙부띠끄(수영점) ☎754-2080	김철현정형외과(다대포) ☎264-8010	대연성당 성물방	동아슈퍼(동대신동)
미샤 수영점 ☎751-4529	민들레(대연) ☎621-0573	박영호치과(대연) ☎628-6903	부산은행 대연점 ☎627-3119
부산은행 메트로시티점 ☎612-8290	아름다운사주카페(대연) ☎627-9331	알리안츠생명 제일지점 ☎631-9161	원당구장(대연) ☎010-5871-0037
오륙도낙지볶음 ☎627-1471	이즈PC방(경성대앞) ☎010-2992-3715	SC제일은행 대연지점 ☎628-0311	조선칼국수 경성대점 ☎622-5150
주왕산삼계탕 하단당리점 ☎291-1411	창희미용실(중동) ☎741-5793	평화장터(대연) ☎622-0991	한가족요양병원 ☎752-6100
한국1마트(대연) ☎621-0791	웨미리마트경성대3호점 ☎628-3353	GS25 과정본동점	SKT 경도대리점 ☎703-7952
SKT 해운대종합대리점 ☎701-8011	개인 및 타지방 배부	여러분의 이름으로 채워주세요. ^^	